



2005-2006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회장과 사무장 보고

유상희 회장, 하영리 사무장

회장 과 사무장 보고	1
신규이민자 프로그램 보고	2
가정상담 프로그램 보고	2
2005년 감사 보고	3
여성회에 도움을 주신분들	4

모든 성공적인 지역사회 단체에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이사회, 직원이 있다. 지난 21년 동안 KCWA는 이 세가지 모두를 갖는 행운을 누렸다. 21년간의 실적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지난 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반과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국계와 주류 지역사회 내의 개인과 단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KCWA는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민자 사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도전과

장벽을 다양한 계층의 사 결정 기관들과 지역사회 전반에 직원과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전달한 결과 대외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었다. 따라서 비 한국계 지역사회와 여러 분야의 정부기관들이 KCWA를 공동프로젝트의 파트너로 또는 문화적 자문을 구하는 기관으로서의 인식도 또한 높아졌다. 동포사회내에서도 회원수의 증가, 연간 서비스 제공, 내부 프로그램과 연간 기금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활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점점 많은 수의 회원들이 새로이 개설한 KCWA의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정착, 취업, 정부업무 등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구한다.

한인여성회의 이사회, 직원과 회원들을

대신하여 지난 한 해동안 여성회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비스, 정보와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파트너이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는 1985년에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다.

정착 및 취업 프로그램

정착 서비스



신규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인여성회는 2006년 1월 웹사이트의 보강으로 캐나다 정착을 위한 자세한 정착정보를 제공하고있는 가운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랜딩 후 정착 상담 뿐만 아니라 랜딩 준비를 위한 사전 상담 또한 증가하고 있다. 광역 토론토를 포함하여 밴쿠버, 켈러리, 애드몬튼, 키치너 등 광범위한 캐나다 전역의 상담과 아울러 한국에서의 이민 준비자들로 부터의 상담 요청으로 여성회의 정착서비스는 한인 신규이민자들의 요구에 높게 부응하고 있다.

한인여성회는 이민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착정보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세미나, 워크샵,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미술, 시민권 강좌, 금전등록기 사용 설명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이민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른 욕구에 기초하여 건강강좌, 캐나다 문화와 함께 배우는 요리교실,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 워크샵 외에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다.

취업 관련 서비스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 그 중에서도 광역 토론토 지역으로 이주하는 신규 이민자의 정착과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 제안도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규 이민자들이 겪는 취업난은 수그러들 줄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문 직종에 종사하다 이주한 기술 이민자들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국에서 쌓은 경력과 기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영어 실력의 부족, 캐나다 경험의 부족,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취업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규 이민자들의 취업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회에서는 이런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 및 취업 교실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IT 취업 세미나를 통해서도 직접 헤드헌터와 신규 이민자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취업에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 내기도 했고 올 봄에 있었던 통역원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해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취업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인 2세 전문인들과 연결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모의 인터뷰 등을 통해 캐나다의 취업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인 여성회 홈페이지의 취업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민자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취업 기회 또한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정착및 취업 서비스 통계 2005년 4월~ 2006년 3월

내 용		상담건수
취업	취업 탐색 상담	102
	자격증 취득 정보	135
	이력서 및 인터뷰	30
	취업 정보 제공	182
	기관 및 개인 의뢰	54
	취업 세미나	1193
정착	사회 복지 혜택 서비스	1245
	건강 관련 서비스	180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서비스	569
	법률 관련 서비스	343
	학교 정착 서비스	118
	기타 서비스	425
	정착 세미나	938
통역 서비스		587
합 계		6,101

I.T. headhunter와 연결을 시켜주셔서 제대로된 직업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문

가정상담 프로그램

지난 한해동안 KCWA 가정상담실의 도움을 찾았던 클라이언트들의 특징은 이민 초기자가정보다는 이곳에서 이민온지 5년 안팎, 많게는 10년 이상 거주해온 가정이 많았다. 대부분 서비스이용자들은 가정문제를 예방차원의 상담비율보다는 이미 어떠한 일이 발생했거나 스스로 결심을 굳힌 후 요청을 취해왔다. 그동안 활발하게 해온 아웃리치의 결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요청은 이곳 각종 주류기관의 부탁으로 가정상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CAS(아동보호국), Community Center 와 관련되는 가정문제가 발생했을때 Victim Service 나 Victim Witness 에서 클라이언트들에게 KCWA 를 추천해줌으로써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웹사이트를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한국인 클라이언트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KCWA 가 주류사회에서 점점 알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문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민자로서의 생활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스트레스를 갖게 됨으로써 빚어지는 부부사이 정신적 폭력증가와 캐나다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터 빚어지는 문화적 갈등을 꼽을수 있다. 가정폭력을 사회적인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이곳 실정에 어두운 서비스이용자들은 한국적 문화에서는 인정될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구중이라든지 손찌검이 이곳에선 범죄로 인정되는 현실에 언어장벽과 함께 문화적 갈등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상담실 산하 클라이언트들의 소규모그룹모임(Self-Help)은 매달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삶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자신감”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써 모임때마다 회원각자가 주도하는 세미나를 비롯하여 외부강사초빙에 의한 강의 및 생활영어공부로서 유익한 모임이 되도록 이끌고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서비스 이용자들이 동반을 요구할때 현재 여건상 불가능하다라는 점이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 통계

내용	상담건수
서비스이용자	265
가정문제	896
사회복지	753
교육 및 직업교육	57
건강관련	44
법률관련 문제	178
이민,난민 및 시민권 관련	144
KWRA program services	68
통역 및 번역	197
합계	2,602

보내주신 정보는 저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니 정말 든든 하군요.

자원봉사 프로그램

한인여성회는 자원봉사를 통한 캐나다 생활 적응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에서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신규이민자들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주인의식 증진으로 새로운 생활 환경인 캐나다에서 생활의 빠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류기관에 한국인의 근면성, 성실성, 신속성, 책임감을 보여줄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있다.

기금 모금 행사

기금모금 행사

일자: 2005, 11. 4
 장소: Holiday Inn Hotel & Suites
 Toronto-Markham
 7095 Woodbine Ave.
 Markham ON L3R 1A3
 수입총액: \$21,739

러미지세일

일자: 2005, 9. 10
 Location: 300 Bloor St.W
 Toronto, ON M5S 1S2
 순수익금액: \$729.69

재정 지원기관

-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 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Toronto
- Ontario Ministry of Community and Social Services
- Ontario Ministry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 Ontario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 City of Toronto-CSP
- United Way of Greater Toronto

재정 감사 보고 (2005년 4월1일-2006년 3월31일)

수입

	2006	2005
정부 지원금	176,842	188,664
기금 모금 및 기부금	43,510	39,095
회비	3,380	1,855
프로그램 수입	7,251	14,150
이자 및 기타	3,708	6,176
합 계	\$234,691	\$249,940

지출

	2006	2005
홍보	638	818
은행 수수료	1,918	623
커뮤니케이션	2,893	2,881
커뮤니티 지원	1,150	1,848
통역비	4,070	6,333
모금 활동	20,012	15,447
한가정 지원원	124	7,218
보험	4,057	3,040
모임	1,933	553
렌트	26,100	26,100
전문인 사례	3,000	3,000
프로젝트 파트너	11,879	11,820
급여	144,252	148,663
사무실 경비	5,677	3,201
교육 프로그램	9,089	10,858
Total	\$236,792	\$242,403

정부 지원금 내역

	2006	2005
Canadian Breast Cancer Foundation	13,148	26,951
토론토 총영사관	5,997	-
온타리오 주정부	125,475	121,185
토론토시	25,000	30,000
United Way	7,222	10,528
합 계	\$176,842	\$188,664

연세드신 저희 어머니를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에서 아들

여성회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시간과 노력이 실제 예산 못지않게 투자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성회에 도움 주신 분들 (2005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프로그램 봉사자

이혜선, 강영옥, 온타리오 한인 간호사 협회, 김영순, 이종훈, 이영주, 윤정아, 김소영, 전해영, 헬렌최, 낸시권, 이수은, Peter Hwang, 이종재, 이재훈, 이정길, 문병익, 김형근, Helen Kim., Martin Choi, Edward Kim, 최테레사, 하영리, 김테레사, 최기선, 김진실, 최성학, 신복실, 한소리, 임나영, Susan Kim, Stephen Scrudon, Kim Mussen과 친구, Michael Diep, 나명주, 박정민, 강경선, 강경순, Alex Chang, 정경애, 서소라, 안은하, 박정애, Michael Fekete, 이진경, Karina Jean Charles, 한영미, 그외무명

일반 기부자

이지연, Nigel Ralph, 김경남, 정동환, 유인희, 이재광, 이정현, 세방여행사, 하영리, Monica Lee, 김형근, 김미령, 이경희, 재속Martin, 벨엘성결교회, 한마음 장로교회, 신복실, 김은정, 정문자, 허정숙, Sol Byung (Stella) Yoon, 전해순 Francis Kim, 하나여행사, 유정자, 한국정육점, 송지숙, 박선영, Susan Park, Elisa Paik, 김명숙, 본한인교회, 현대자동차, 평통, 삼성전자, 서울분식, 장요한, 김인숙, 총영사관, Sam Kim, 조순옥, Stella Won, Tae-Young Yoo, 조명숙, 전인숙, 황경자, 임경자, 박지원, 이재락, 노사무엘, 김영주, 송광룡, 그외무명

물품기증자

최성학, 유상희, 양송현, 유정자, 신순자, 신복실, 박숙훈, 서민정, 서울의류, 박정애, Michael Fekete, 이규희, 엄아가다, 김수복, 에뉴뉴 꽃집, 안귀란, 신순자, 여성회직원일동, 여성회이사일동, 토론토한인회, 이덕형, 서현희, 박숙훈, 임성수, 그외 무명

고통분담기금

고 김주은 님, 김미령, Jae Sook Martin, 벨엘성결교회(에스터 선교회), 한마음 장로교회, Ronnie Ferzest, Phyllis Jeff, Beth Denaburg, Josh Fishes, Tim Lim, Miles Saunders, Nicola White, Joni, Alan, Chelsea Shanoff, Joanne, Hank, Talat Evanweinstein, Kay, Jack Pearson, Eleanor Wong, Michelle Chan, Aleksandra Lalovic, Dave, Joan Klachan, Zora Kriz, Matthew Bernstein, Christina Blesa, Theresa Widdifield, Lorraine Housego-Dymont, Hubert Hsu, Donald Basa, 그외 무명



여성회 식구들 (2005년 4월 1일— 2006년 3월 31일)

제 21대 이사

- | | |
|---------------|-------------------|
| 유상희 (회장) | 이 모니카(섭외 위원장) |
| 최성학 (부회장) | 박숙훈(이사(재정)) |
| 유정자(서기) | 신순자(이사(재정)) |
| 양송현(부서기) | 김지인(이사(회원)) |
| 김진실(회계) | 최경애(이사(사업)) |
| 문희배(부회계) | 박순기(이사) |
| 임희승(재정 위원장) | Annesse Lee (준이사) |
| 원 스틸라(총무 위원장) | 김수복 (준이사) |
| 안귀란(회원 위원장) | 유주현(준이사) |
| 장제니퍼(사업 위원장) | 조순옥(준이사) |
| 안주영(섭외 위원장) | 박경애(준이사) |

직 원

- 사무장: 하영리
 가정상담원: 이영선, 김광숙
 정착, 취업상담원: 오병천, 강영옥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최정희, 김정실
 행정업무: 정경애, 박정민

알고나니까 속이 후련하네요. 여성회
 아니었으면 어쩔뻔 했을까... 여성회
 에 오기를 잘했습니다.

-여성 서비스 이용자

캐나다 한인 여성회

27 Madison Avenue, Toronto, Ontario M5R 2S2

· Phone: (416) 340-1234 · Fax: (416) 340-8114 · E-mail: kcwa@kcwa.net · Website: http://www.kcwa.net

자원봉사나 재정지원으로 여성회 사업에 동참해 주십시오.